

남편 세금 기록 있으면 부인도 소셜 연금 받는다

Cover story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남편 만기 은퇴 연금의 최대 50%까지
이혼 배우자는 전 남편보다 먼저 신청 가능
사별 배우자는 60부터, 나중에 큰 연금 선택

미국 소셜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배우자 연금이다.

배우자 연금은 '스파우절 베니핏' (Spousal Benefit) 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배우자 연금' 이라고 부른다. 배우자 연금은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세금을 적게 낸 부인 또는 남편이 일을 한 남편 또는 부인의 세금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말한다. 현재 결혼한 상태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사별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전 남편이 죽었다면 '이혼 배우자' 가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 자격으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을 3가지로 구분해 정리했다.

미국은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근로 소득세를 낸 사람들에게만 연금을 준다. 이를 소셜 연금, 즉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부른다. 물론 연방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다. 그동안 국민 각자가 낸 근로 소득세를 정부가 모아 두었다가 채권 투자로 돌려 돌려주는 돈이다.

만일 일을 해 돈을 벌었다고 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르다.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 또는 노부모를 돌보느라 평생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있었을 수 있다. 또 일을 했어도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게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냈다고 해도 금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규정상 은퇴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못한 배우자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미국은 1935년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주로 여성)에게도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를 '배우자 베니핏' (스파우절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금액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 준 부인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6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usmetronews@gmail.com



medicaid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려면 3·5면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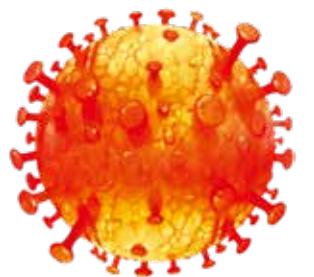
고열(fever) 7면

medicare

건강보험 가입하기 8·9면

education

대학 재정 보조 'FAFSA' 10면



special issue

탈출 '코로나19' 타임라인 12·13면

real estate

주택 팔려면 지금이 적기 18면

column

김동희 칼럼 19면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0·21면

US 메트로 뉴스

usmetronews@gmail.com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 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 문의 (323)620-6717

구독·배달 (323)620-6717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인 최대의 메디칼 그룹인 이유!

대형 보험회사들과 함께 드리는 의료 혜택!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건강보험 에이전트나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한인 최대 규모 만큼이나 많은 혜택을 시니어 분들께 드리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대형 보험회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은 한인 최대 규모의 메디칼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이순재

www.seoulmedicalgroup.com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웰케어 엔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스캔 블루실드 얼라이언트 에트나 클레버케어 애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IRA·401(k) 등 은퇴 계좌, 메디케이드에 영향 줄 수 있어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 (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료 및 '장기 간병' (Long Term Care) 혜택을 무료로 받는다. '메디케이드'는 주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우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며 거주 주택과 자동차 1대 등을 제외한 기타 재산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혜자와 배우자가 모두 숨지면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만큼의 의료비를 거주 주택에서 가져간다.

그렇다면 은퇴를 대비해 모아둔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연방법에는 은퇴 플랜과 메디케이드 자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 다만 메디케이드를 집행하는 주정부가 주법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법을 잘 알아봐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은 은퇴 연금 지불금, 기타 수입 및 자산,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IRA 또는 401(k)는 장기 간병 지원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주정부 대부분은 메디케이

구좌에서 정기 인출하면 자산으로 인정 안돼 인출금은 수입으로 계산돼 자격 한계 넘을 수도

드 신청자의 펜션, 401(k), IRA 또는 기타 은퇴 계좌를 자산이나 수입으로 생각한다. 만일 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분명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다면 수입에 포함돼 역시 메디케이드 수입 한계를 넘어 설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단순 이분법적 방법으로 자격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은퇴 계좌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많은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돼 자격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은퇴 계좌 수입과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 구입, 또는 단계적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법들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 메디케이드 자산 한계
양로원 또는 인후 케어와 같은 장기 간병 메디케이드는 자산 한계(resource limit)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이 한계는 주정부마다 다르다. 2020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많은 주들이 개인 2,000 달러, 부부 3,000달러를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뉴욕의 기준은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 신청자 1만5,750달러, 부부 신청자 2만3,100달러, 미네소타는 개인 3,000달러, 부부 6,000달러를 책정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자산들이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자격 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거주 주택, 가구, 자동차 1대, 이미 지불된 장례 계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401(k), IRA, 펜션 등을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추가 있는가 하면 제외시키는 주도 있다.

■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주정부마다 은퇴 플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 은퇴 자금 지불 상태(Payout Status)
일부 주는 IRA 또는 401(k)에서

돈이 정기적으로 지불되고 있다면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RMD다.

2019년12월 바뀐 은퇴 개설텐법(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에 따라 72세부터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서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의무적으로 찾아 써야 한다. 이전까지는 70.5세 부터 찾도록 했다.

매년 이 금액 이상을 찾지 않으면 금액의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고 부른다. 이 RMD는 연방 국세청의 기대수명치 테이블에 의해 계산되는데 펀드가 다 소진될 때까지 매년 동일 한 금액을 가입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주정부 자체적인 기대 수명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찾는 금액도 다르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정기적으로 돈을 찾아 쓸 경우, IRA등 은퇴 플랜을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면으로 계속



55년생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2개월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규정 알아본다

매해 10월 소셜시큐리티국(SSA)은 다음해 바뀌는 규정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말 SSA에서 발표한 2021년 소셜 시큐리티 변경규정을 6가지로 정리했다.

■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인상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1.3% 더 받는다. 2020년의 전년대비 1.6%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소 올라갔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게 되는 수입 상한값이 2020년의 13만7,700달러에서 14만2,800달러로 5,100달러 올랐다. 상한값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2021년 장애인 베니핏도 다소 올랐으며 만기 은퇴 연령이 전에 일을 하면서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입 한계도 조금 인상됐다. 수입에서의 소셜시큐리티 택스 비율은 종업원 6.2%, 자영업자 12.4%로 변함이 없다. 또 소셜 베니핏 혜택을 누리기 위해 쌓아야 하는 크레딧은 1크레딧 당 최소 1,530달러로 60달러 올랐다.

■ 연금 1.3% 인상

거의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2021년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활비 조정(COLA)율에 따라 전년 대비 1.3% 인상된 돈을 받는다.

COLA는 매년 노동청이 계산하는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W)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도시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만약 CPI-W가 전년 3분기에서 금년 3분기 동안 0.1% 이상이 올랐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올랐다. 참고로 2020년 COLA는 1.6%였고 2019년에는 2.8%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었다.

금년 1.3% 증가분은 월 평균 20달러 올랐다고 보면 된다. 2021년 미국인 평균 소셜 연금은 1,543달러다.

■ 소셜시큐리티 택스 상한가 \$142,800

2020년 종업원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6.2%다. 고용주는 동일한 비율로 종업원 세금을 내 준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12.4%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다. 올해 역시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택스 규정에 적용 받는 수입은 14만2,800달러로 2020년 보다 5,100달러가 올랐다.

이상 버는 수입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 연금 역시 상한선이 생긴다. SSA에서 한계 수입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기 때문이다. 2020년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소셜 연금

기준으로 계산된다. 한해 일찍 받을 때 마다 역시 8%가량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2020년 62세가 된 사람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8개월이고 2021년 62세가 되는 사람의 만기 은퇴 연령은 2개월 늘어난 66세10개월이다. 현재의 소셜 시큐리티 법에 따르면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까지 매년 2달씩 늘어나게 돼 있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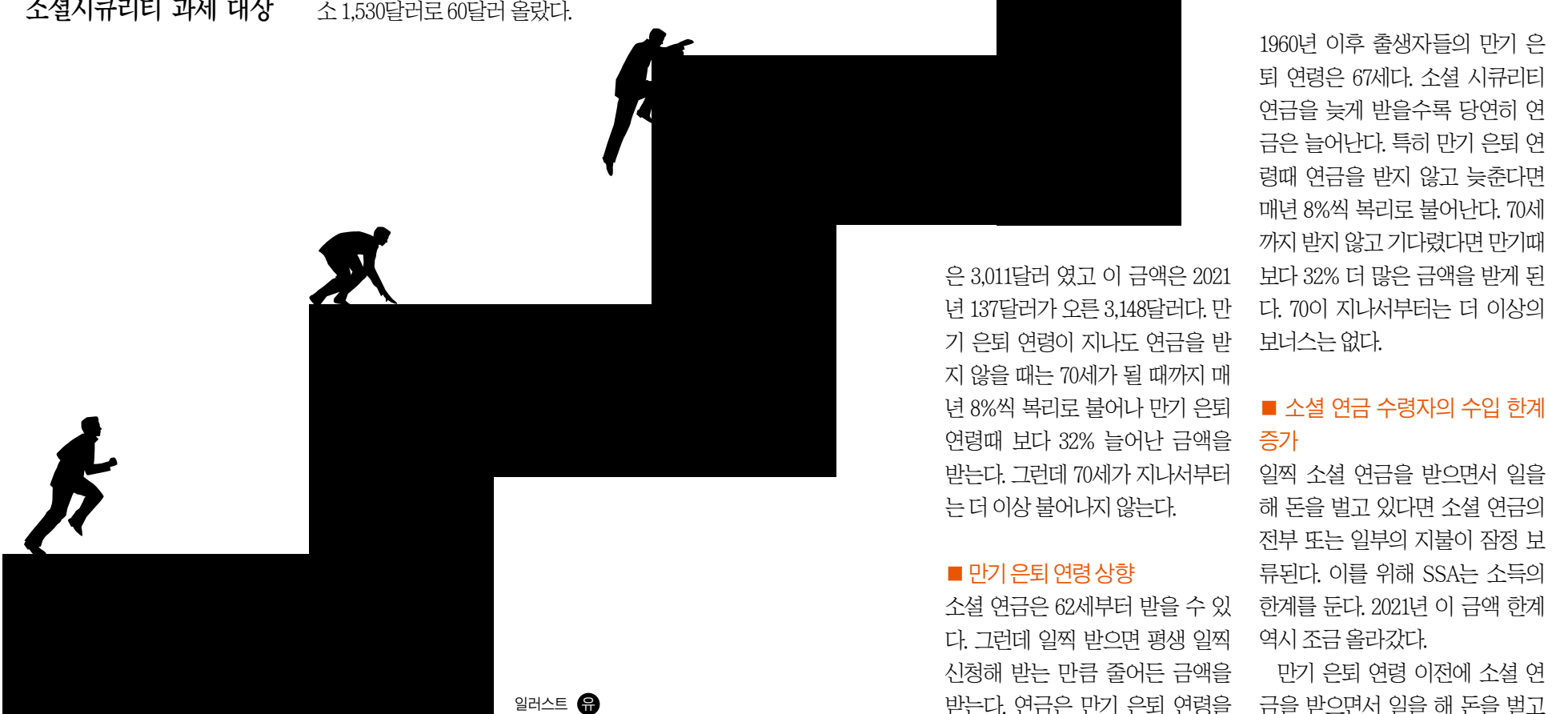
올 지급 만기 은퇴 연령
최고 소셜 연금 3,148달러

2021년 소셜연금
월 평균 \$20달러 인상

1년 과세 수입 5,880 달러
이상이면 4크레딧

조기 연금 수령자 근로
수입 공제한계 소폭 인상

최고 14만2,800달러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당연히 연금은 늘어난다. 특히 만기 은퇴 연령때 연금을 받지 않고 늦춘다면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난다.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렸다면 만기때 보다 32%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70이 지나서부터는 더 이상의 보너스는 없다.

■ 소셜 연금 수령자의 수입 한계 증가

일찍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있다면 소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잠정 보류된다. 이를 위해 SSA는 소득의 한계를 둔다. 2021년 이 금액 한계 역시 조금 올라갔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은 3,011달러였고 이 금액은 2021년 137달러가 오른 3,148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도 연금을 받지 않을 때는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나 만기 은퇴 연령때 보다 32%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70세가 지나서부터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 만기 은퇴 연령 상향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찍 받으면 평생 일찍 신청해 받는 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을



소셜 연금



별어도 소셜 연금은 줄어 들지 않는다.

■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수당 증가**
 거의 1,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 2021년 이들에게 지불되는 금액 역시 다소 올랐다.

법적 시각 장애인은 전년 대비 80달러 오른 월 최고 2,190달러를 받는다. 기타 장애인은 50달러 인상된 최고 1,310달러다.

미국은 1929년 생 이후 출생자부터 최소 40크레딧의 근로 점수를 받아야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복지 혜택을 준다.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물론 과세 수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일을 해 번 소득으로 세금을 냈다면 소득에 따라 크레딧을 받게 된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4점이다. 그렇다면 근로 크레딧은 어떻게 계산될까. 매우 간단하다. 1크레딧을 쌓으려면 1,470 달러 이상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에 최대로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이 4크레딧이므로 1년에 5,880달러 이상만 벌어도 4 크레딧을 받는다. 돈을 그 이상으로 많이 번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순 수익을 0에 가깝게 보고를 했다가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근로 크레딧 산정 수입은 지난해 보다 60달러 올랐다.

있다면 2021년 1만8,960달러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넘는 만큼의 수입 2달러당 1달러씩 소셜 연금에서 공제 된다.

물론 공제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소셜 연금에 가산돼 지불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장 받는 소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지 않게 되므로 수입면에서 지장을 줄 수는 있겠다.

만약 소셜 연금을 조기 신청해 연 1만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 소득이 연 2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한계치보다 140달러가 많으므로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들어 소셜 연금은 1만달러보다 70달러가 줄어든 9,030달러가 될 것이다. 이 한계 금액은 전년보다 720달러 올랐다.

2021년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면 2021년 1월부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소셜 연금 삭감 비율은 3달러당 1달러다. 이때 수입 한계 금액은 5만520달러다. 일단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돈을

3면에서 계속

주법에 따라 다르므로 주법 전문가와 상의 필요

하지만 매달 지불되는 돈은 신청자의 수입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메디케이드를 '매스 헬스'라고 부름), 애리조나(애리조나 헬스케어 코스트 컨테인먼트 시스템), 미주리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는 IRA, 401(k) 등 은퇴 플랜은 돈이 지불된다고 해도 자산으로 계산해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도록 했다.

▲ **지불되는 금액(Payout Amount)**
 신청자의 IRA나 401(k)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 구좌로부터 돈을 지불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메디케이드 자격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주는 2020년 기준으로 월 2,349달러를 수입 한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기타 돈을 받는다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은퇴 플랜의 종류**
 '로스 IRA'는 RMD 의무가 없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의 근로 소득으로 적립된다. 따라서 RMD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RMD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배분 상태' (payout status)로 바꿀 수도 없다. 또 평생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로스 IRA는 자산으로 포함된다. RMD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에만 해당된다. 그동안 밀어졌던 세금을 내라는 의미일 것이다.

▲ **'현금 인출' (cash out) 가능한 플랜**
 은퇴 플랜에서 묵 돈을 꺼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구좌는 개인 저축이나 체크링 어카운트 처럼 판단돼 자산으로 계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출한다. 예를 들어 미리 돈을 내고 장례 계약을 맺거나(대부분의 주는 액면가 1,500달러까지 인정해 준다) 집안 계단 변형 공사, 휠체어 출입가

능 입구 설치, 목욕탕 개조,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주거 환경에 맞는 주택 개량에 돈을 쓸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입에도 사용하거나 장기간병 비용으로 지불해도 된다.

▲ **결혼 상태**
 일반적으로 결혼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동 동산' (현금으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는 자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지 관계 없이 공동 소유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장기 간병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결혼했고 배우자가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된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어카운트는 신청자의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은퇴 구좌의 경우, 일부 주는 소유주의 이름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캘리포니아는 배우자의 은퇴 플랜은 신청자의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뉴욕은 신청자의 배우자 은퇴 구좌를 '배당금 지불 상태' 가 아닌 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콜로라도와 같은 주는 부부 중 한명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어도 은퇴 구좌를 무조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 **배우자 생활비 보장**
 만약 배우자중 한명만 메디케이드 장기 간병을 신청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가 극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규정이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배우자로 인해 나머지 배우자가 가진 돈을 모두 소진해 생활 하기 조차 어렵게 되는 극한 상황을 막아주는 규정이다. 이를 '최소 월 기본생활 유지비' (MMMNA·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라고 부르는데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월 수입을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는 규정이다. 또 '부부 재산 할당'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규정도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가 비 신청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자산을 할당해줄 수 있는 규정이다.

Cover story

1면에서 계속

이혼배우자, 재혼했으면 혜택 못 받아

부인이 연금을 일찍 받는다면 연금 액수는 일찍 받는 만큼 깎일 것이다. 그렇다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늦게 받는다고 해서 부인의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부인이 70세까지 배우자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린다고 해도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50% 이상은 받을 수 없다.

■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 연금

부인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절반을 받는다. 최대 절반을 받으려면 부인 역시 만기 은퇴 연령 돼야 한다.

미국 연금 신청은 62세부터 가능하다. 62세부터 70세까지 매년 대략 8%씩 복리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63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62세에 받는 금액의 8%를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에 따라 연금을 매년 늘어나며 70세까지 불려 나갈 수 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까지 만 늘어난다.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려도 남편의 연금 처럼 70세까지 불어나지는 않는다.

가끔,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연금액을 받는다는데 부인 역시 최고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대답은 '아니다' 이다. 남편이 늦게 받는다고 해도 부인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만기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연금이 2,000달러다. 남편이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연금은 대략 2,600여 달러가 된다. 그런데 부인이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은 2,600 달러의 절반인 1,3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의 절반인 최대 1,000달러다.

결혼 부부의 배우자 연금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또는 여성)이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해야만 배우자 역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최고 금액을 받았다고 70세까지 연금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부인 역시 남편이 받지 전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이혼 배우자 연금(Divorce Spousal Benefit)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전 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았어도 부인이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이혼 직후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한가지, 전 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전 부인은 가

장 큰 연금을 골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혼한 부인이나 남편들이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을 몰라서 연금을 신청할 때 전 배우자의 서류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곤 한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전 배우자의 정보를 찾아 연금을 지불해 주므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 정도는 미리 챙겨 둔다면 소셜 오피스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연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별한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인이 장애를 겪고 있다면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인이 죽은 남편(배우자)의 16세 이하 생물학적, 입양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5년 소셜시큐리티 법을 일부 개정해 이전까지 적절히 애용돼 왔던 소셜시큐리티 연금 극대화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극대화 전략이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 연금 신청을 위해 연금을 먼저 신청(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부인이 신청 가능하므로)한 직후 자신의 연금 수령을 보류하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또하나 전략으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갈아타는 '리스트리트 어플

리케이션'을 허용 했었지만 의회는 이 또한 없애 버렸다. 다만 1954년 1월2일생 이전 출생자와 사별한 배우자는 계속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후 출생자들은 연금 신청 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근로 기록 중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을 받게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큰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이다.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를 '딤드 어플리케이션'(Deemed Appl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개정법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제외시켰다. 사별한 배우자는 부인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자신의 기록으로 먼저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남편의 기록으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0세부터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일반 연금 지불 연령인 62세에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62세에 자신의 연금 먼저 받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하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졌다면 이혼한 부인 역시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의 16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고 있다면 이 또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자녀들이 16세를 넘으면 더 이상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10년 결혼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언제 소셜 연금 신청해야 하나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만기 은퇴 연령(FRA)에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예를 들어,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다면 일찍 받는 달마다 0.5%씩 줄어든 돈을 평생 받는다.

올해 1959년생들은 생일을 맞는 달부터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런데 1959년생의 FRA는 66세10개월이다. 만약 1959년생이 62세가 되는 올해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FRA때 연금의 70.8%만 평생 받는다. 무려 30%나 적게 받는 것이다.

반대로 FRA를 지나서 연금을 늦게 신청하면 늦는 기간만큼 금액이 올라간다. 70세까지 매년 약 8%씩 복리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의 FRA는

66세 6개월이며 연금의 100%를 매달 받는다. 그런데 이때를 지나 67세에 신청하면 FRA보다 6개월 늦게 받았으므로 104%의 연금을 매달 받는다.

또 70까지 기다리면 42개월 동안 불어나 128%가 된다. 결론적으로 62세와 70세에서 받는 금액 차이는 매우 크다.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소셜 연금 받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왜 **고열** (fever)을 무서워하나”

인간의 정상 체온은 '98.6'도
진화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낮아져
대부분 '고열'은 병균을 물리치는 고마운 존재
병증 완화, 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줘
어린이는 '고열'보다 열 상승 속도가 문제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이다. 체온이 103~104도를 넘으면 감염이 됐다고 봐야하므로 자가 격리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체온은 얼마가 정상이고 또 체온, 즉 열은 우리 몸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뉴욕 타임스의 제인 브래디 기자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요즘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체온을 잴다. 이마에 스캐너식 체온기를 대면 금방 체온이 표시된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또는 무더위 속에서도 체온은 항상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체온은 얼마가 정상일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화씨 98.6도를 정상체온으로 본다. 섭씨로는 37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정상 체온은 이보다 조금 낮은 97.5도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샌타 바바라의 인류학자 마이클 거번, 토마스 크래프트가 공저한 '인간의 체온은 정상보다 낮다-볼리비아 아마존에서 조차도'에 기록된 저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자.

■ “만유 공통의 단일 ‘정상’ 체온이란 없다”

체온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침에는 낮고 저녁에는 높아진다. 운동 중이거나 운동을 마친 후에는 체온이 오르고 생리 때, 또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보통 나이가 들면 체온이 낮아진다.

더군다나 과학자들이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거주자 수십만명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인간의 정상 온도는 97.5도다. 이는 1867년 독일

의사 칼 분데리히 박사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정상 체온보다 1도 정도 낮은 수치다. 분데리히 박사의 연구 결과, 인간의 정상 체온은 97.2도에서 99.5도 사이였다.

1862년~2017년 데이터에서 스탠포드 의과 대학의 줄리 파세넷 교수는 공동 연구 저서에서 10년마다 정상 체온이 0.05도씩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파세넷 교수는 정상 체온의 75%는 98.6도 이하임을 관찰했다.

■ 98.6도 이상이면 ‘고열’일까
그렇다면 내 체온이 98.6도 이상이면 열이 난다고 봐야 한다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뉴욕 버팔로 ‘로스웰 파크’ 암센터의 샤론 에반스 암 및 면역학 교수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100.4도라고 해도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교수는 동료 교수 엘리자베스 레파스키, 다니엘 피셔 교수와의 공동 저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열은 인체에 이로움을 주며 심각한 병증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완치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교수는 ‘열’은 면역 시스템에서 다양한 ‘무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혈 동물, 냉혈 동물 등 모든 동물에 걸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열은 모든 면역 체계를 잘 작동하도록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에반스 교수에 따르면 ‘열’은 내면의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백혈구의 활동을 증강시킨다. 즉, 병원체를 찾아 인간의 몸 속을 돌아다니는 과립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도록 해준다. 대식세포는 몸속에서 즉시 경보를 발령해 T세포와 B 세포를 불러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들 세포는 침입 병원균에 반응하기 시작해 몇일 후 체내에 병원균에 저항하는 항체를 생성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백신학자 필 오핏 박사는 필라델피아 의대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히포크라테스가 맞았다: 해열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에서 “열을 (강제적으로) 낮추면 병증을 더 악화시키

고 병증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다.

오핏 박사는 “열은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따라서 타이놀롤 등에 포함된 해열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버프로펜’과 같은 해열제를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타고난 방어 혜택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오핏 박사는 열이 낮아지면 분명 두통이나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누그러지고 기분도 좋아진다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염을 막아야 한다. 밖으로 나돌지 말고 남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서 “바이러스의 번식을 줄여주고 독감 같은 병증의 앓는 기간을 짧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 열은 바이러스 번식 억제 - 고열보다 상승 속도에 주목

닭 스프는 감기 걸렸을 때 효험 있는 민간 요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있다. 따뜻한 김이 비강(콧구멍)의 온도를 올려 주면서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한다.

에반스 박사 등은 “척추 동물의 진화를 통해 열병의 ‘열’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고 기록했다. 이는 곤충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도 해당된다. 또 도마뱀 또는 벌과 같은 냉혈 동물도 몸이 아프면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따뜻한 환경을 찾아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열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쓸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브룩클린의 소아과 의사 고든 박사는 말한다. 한밤중에도 자녀들의 열이 오르면 부모들이 전화를 걸곤 한다.

그녀는 밤에 아이들의 고열이 예상되면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 주고 감염으로 인한 고열 자체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

명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의 몸은 고열로 인해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상 하부라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잠시간의 경련, 의식을 잃는 등의 열에 의한 발작은 고열 상태 유지가 아니라 열의 상승 속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전적으로 민감한 어린이들은 99도에서 100.8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올라가면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든 박사는 “열발작은 이를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그리고 전염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기들의 고열은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주의를 환시시켰다.

그렇다고 열이 올라도 무방비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다.

고든 박사는 “열이 체내 감염균과 싸우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린이, 특히 비언어기의 어린이들은 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거나 먹지 못한다면 해열제를 처방해 열을 내리도록 한다”고 밝혔다.

성인들도 체온이 103도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의학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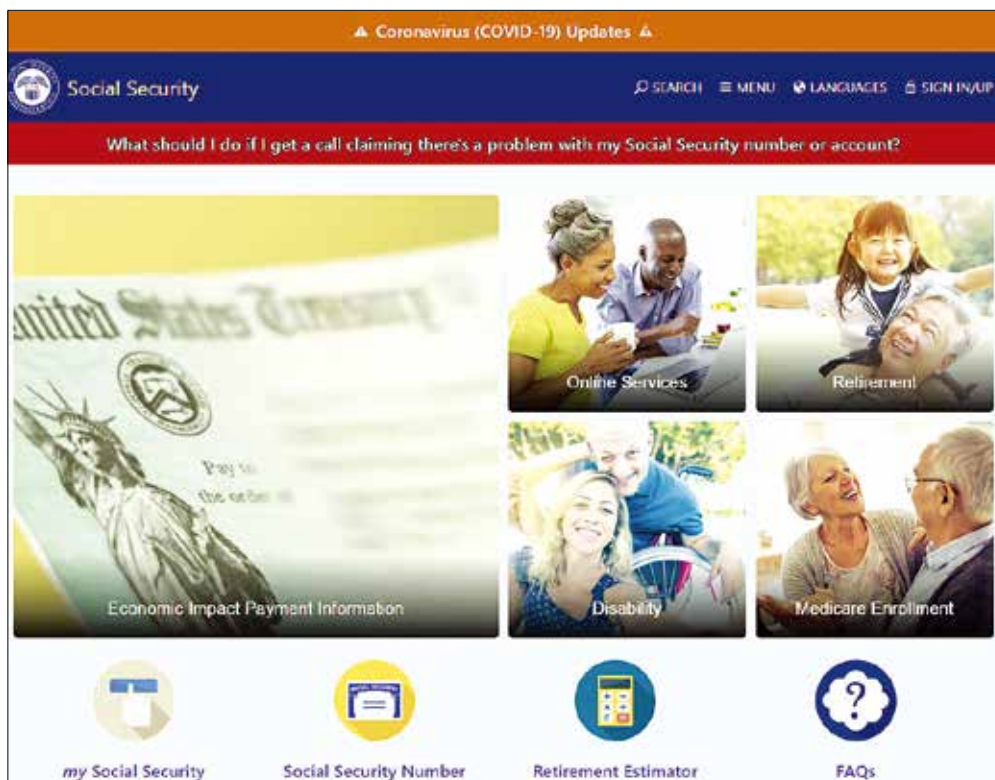
열에 대한 주의할 점도 있다. 감염에 의해 체온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다시 말해 한 낮 차안에 아이들이 방치된다거나 더운날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사병에 걸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온은 어느 신체 부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귀는 구강 온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며 구강은 겨드랑이 또는 이마 온도 측정 보다도 더 높다.

신생아는 항문 온도 측정이 가장 정확하지만 성장한 아이들의 체온은 백신 접종을 했다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고든 소아과 전문의는 설명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 영주권자 건강보험

65세 생일 전후 3개월씩 7개월 이내 가입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 낸 근로자 또는 배우자
병원 혜택 '파트 A' 와 진료비 지원 '파트B' 로 구분
'파트 B' 보험료 \$148.50 - 수입에 따라 최고 \$504.90
재산, 수입 없으면 '메디케이드' 서 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미국인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즉 메디케어에 가입한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의 '마이 소셜시큐리티' 를 개설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쉽게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 캡처)

65

■ 메디케어 가입 자격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만약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파트 A를 돈을 내고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소셜시큐리티 또는 철도은퇴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동안 받고 있거나 ▲루게릭 병으로 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또는 ▲말기 신장 질환(ESRD)으로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 이식을 받았다면 무료로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파트 B' 혜택을 보려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는 배우자가 낸 메디케어 택스로 운영되지만 '메디케이드' 는 일반 국고에서 지불하는 극빈 지원 자금으로 운영된다. 주에 따라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칼' 이라고 부른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극빈자 프로그램이다.

■ 개인소득 1만7,609달러 이하면 주정부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어는 병원 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A' (PART A)와 의사 진료비를 지불해주는 '파트 B' (PART B)로 구분된다.

'파트 A' 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로 소득세를 내, 복직 혜택에 필요한 '40' 근로 크레딧을 채웠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 역시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근로 기록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돈을 내고 구입하면 된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30점은 넘지만 40점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 월 263달러를 내면 된다. 하지만 30 크레딧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478달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일할 한 적도 없거나 수입이 극히 적어 극빈층 그룹에 속한다면 '메디케

이드' 라는 일종의 구호보험에서 '파트 A' 보험료를 지불해 준다.

극빈자 구호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입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의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주는 연방 빈곤선 138% 이하 소득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전통 메디케이드 정책을 고수하는 주는 연방 빈곤선 100% 이하에게만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2021년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 100%는 개인 1만2,760달러, 부부 1만7,240달러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혜택을 확대하는 주는 연방 빈곤선 138% 이하로 개인 1만7,609달러, 부부 2만3,792달러이다.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수입 자격이 다르므로 주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면 된다.

'파트 B' 는 의사를 방문할 때 비용을 커버해주는 보험이다. 이 '파트 B' 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는다. 2021년 보험료는 148.50달러로 2020년에 비해 3.90달러가 올랐다. '파트 B'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만약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1년 단위)의 벌금(보험료의 10%)을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파트 B 보험료는 연 수입에 따라 월 최고 504.90달러 까지 낸다. 간혹 고소득자들로 부터 "왜 내 파트 B 보험료가 이렇게 높냐" 는 문의를 받는다. 이는 연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까지 148.50달러이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5단계로 나눠 올라간다. 연소득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달러 이상이면 월 최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보험료는 2년전 수입을 근거로 산정된다. 세금 보고서에 의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고 2년전 세금 보고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징수는 2가지로 나뉜다.

▲소셜 연금이나 철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되는 연금에서 파트 B 보험료가 원천 징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국으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직장 보험이 있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파트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직장 보험이나 은퇴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혜택이 끊긴 이후 8개월 이내에 '파트 B' 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자넷김기자

메디케어 가입 따라하기

팬더믹으로 대면 신청 대신 전화 온라인 가입해야

소셜 연금 받고 있다면 신청 없이 3개월전 자동 가입
SSA의 내 어카운트 개설해야 온라인 가입 가능
운전면허 업로드 등 신분 확인 더 까다로워져

■ 메디케어 가입하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면 65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보통 65세 생일을 맞기 3~4개월 전에 소셜시큐리티 국으로부터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된 증명서인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자동으로 가입된 것이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65세 생일을 맞

는 달 3개월 전과 3개월 후, 총 7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5일 이라면 3개월 전인 1~3월, 그리고 3개월 후인 5~7월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혜택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65세가 되면 파트 A는 별도의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더라도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미 메디케어 파트 A 가입

자로 등록해 놓지만 파트 B는 본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직장 보험 등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파트 A만 유지하고 파트 B는 직장 보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입을 미룰 수 있다.

■ 메디케어 신청 방법

메디케어 신청은 3가지중 한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오피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기.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해

거의 모든 전국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이 문을 닫고 대면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오피스 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화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전화 신청은 1-800-772-1213(TTY: 1-800-325-0778)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1시간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철도 근로자는 1-877-772-5772.

전화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우선 소셜시큐리티 번호, 거주지 주소, 운전면허증, 미국 시민권

취득 날짜, 시민권 번호 또는 미국 출생지는 출생 증명서 등이다.

만약 65세 넘어서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파트 A'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8개월 이내에 파트 B를 신청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미 파트 A를 가지고 있는데 파트 B를 신청하고 싶다면 'CMS-40B 양식' (직장 그만둔 날짜와 보험 중단 날짜 등을 묻는 매우 간단한 양식임)을 medicare.gov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인근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대개 2~3주면 메디케어 카드가 도착한다.

■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가입하기

전화 통화를 기다리지 않고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가입이다. 하지만 신분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온라인 가입 절차를 다음과 같은 순서별로 정리했다.

① 소셜 시큐리티국 공식 웹사이트인 ssa.gov 또는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인 medicare.gov에 접속한다.

접속을 ssa.gov로 했다면 첫 화면 하단의 'medicare enrollment'를 클릭한다. medicare.gov를 이용한다면 화면 왼쪽 하단의 'Resource' 아래 'Apply for Medicare'를 누른다.

클릭을 하면 두 사이트 모두 ssa.gov의 '메디케어 베니핏' (Medicare Benefit) 페이지로 자동 이동된다.

② '메디케어 베니핏' 페이지에서 화면을 올려 중간으로 이동하면 'How To Apply Online For Just Medicare'가 나온다. 바로 아래 'Apply for Medicare Only'를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③ 다음 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여부를 묻는다. 하단 노란색 칸의 동의에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④ 화면 중간 'Apply and Complete'의 'Start New Application'을 누른다. 여기에 있는 안내

문은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개설한 후 '은퇴 연금 또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10~30분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작성 도중, 언제라도 신청서를 저장한 후 다시 돌아와 나머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⑤ 다음 페이지는 누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만일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면 상단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하단을 체크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체크하면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개설했느냐고 묻는 질문이 나온다.

개설했다면 로그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개설하지 않았다면 미국내 주소가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일단 '예스'를 누르면 어카운트 개설 사이트로 이동한다.

⑥ 어카운트를 개설했다면 로그인 해 들어가 간단히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어카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좀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다음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⑦ 어카운트를 개설하려면 'create account'를 누른다.

역시 약관 동의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하단 동의란을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드디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⑧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묻는다. 또 신분 확인 작업을 위해 운전면허 주소가 거주지와 동일할지의 여부를 묻고 셀폰, 이메일 주소 등을 적도록 요구한다. 모두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다.

이를 작성해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분 확인 절차로 간다.

⑨ 이 단계 부터는 운전면허를 사진 찍어 보내는 등 얼마전까지 없었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운전면허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비자, 매스터 크레딧 카드 끝 8자 또는 연방정부에 보고된 W-2 또는 1099 수입, 자영업의 경우 스케줄 C의 수입 항목 금액 등 한가지를 택해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청자가 이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곤 한다. 제대로 된 금액을 입력시켰고, 또 운전면허 사진도 업로드 시켰는데 신분 확인이 안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3번이상 시도해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24시간 신청서가 동결돼 다음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도 계속 실패 한다면 전화로 신청하던가, 아니면 다음의 방법으로 인터뷰 일정을 잡아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의 메디케어 베니핏 페이지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시작된다.



마이 소셜시큐리티 어카운트를 개설하려면 화면과 같은 질문을 입력한 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 캡처)

■ 인터뷰 일정 잡기

화면에 나와 있는 도움 전화 번호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1~5분 이내에 관계 직원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주소, 소셜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등)를 거친 후 메

디케어 신청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준다. 영어가 불편하다면 한국어 직원의 인터뷰를 요청하면 된다. 신원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하면 일찍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FAFSA 질문 36개로 간소화 ‘펠 그랜트’ 수혜자 확대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무상 학비 보조금〉

대학 재정 보조 신청인 FAFSA가 대폭 간소화되고 무상 보조 금인 ‘펠 그랜트’ 지급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연방 의회가 통과시켜 대통령이 서명한 2021 특별 예산안에 FAFSA라고 불리는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서류를 간소화하고 학자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혜택 폭을 늘리는 내용의 대학 학비 지원 방안 등 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이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쳐 이 개혁안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계는 무려 100개가 넘는 FAFSA의 질문이 복잡한 데다가 불필요한 질문도 많으며 질문 항목의 대폭 삭제를 요구해 왔었다. 지나치게 많은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2021년 10월 1일 시작되는 2021-2022 학년도 FAFSA 신청부터 부분 적용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3~24 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FAFSA와 펠 그랜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 FAFSA 신청서가 짧아진다
FAFSA는 연방 및 주정부, 대학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방 학자금 용자, 무상 재정 지원, 학내 근로 등등 모두 FAFSA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상태가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각 대학 당국은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FAFSA는 학비 보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신청서다. 그러나 FAFSA에는 무려 108가지 질문 항목이 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나 가족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기



대학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FAFSA의 질문이 대폭 줄어든다. 또 무상 학비 보조금인 펠 그랜트 수혜 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연방의회, 대학생 학비 보조 지원 방안 대폭 개선 올 10월 신청부터 적용, 2023~24 학년도부터 본격 시행

연방 디렉트론, 대학 졸업까지 받을 수 있어 ‘학생 보조 지수’로 학비 지원 등급 세분화 실업 수당 받는 가정, 펠 그랜트 자격 부여

가 쉽지는 않다. 일부는 더 많은 보조를 받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 작성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대폭적인 개선방안으로 질문의 숫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안을 발의했던 연방 상원의원의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의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는 설명서를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질문을 36개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의 수입은 IRS 세금 보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현재는 가족이 직접 IRS데이터 확인 기능을 이용해 각자 수입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다.

또 학생들에게 더 이상 마약 관련 범법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도 사라진다. 이는 마약 범죄가 더 이상 연방 재정 지원 결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 ‘가족 예상 지원금’을 ‘학생 보조 지수’로 명칭 변경
그동안은 ‘가족 예상 지원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적어 넣게 돼 있었다. 가족들이 학생에게 학비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정부는 FAFSA에 기재되는 가족 수입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계산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가족들이 내도록 한다. 정부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실제 가족들이 학비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가족은 자녀들의 학비 지원을 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학비 보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원 능력이 없을 경우 모두 ‘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난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EFC를 ‘학생 보조 지수’ (Student aid index·SAI)로 바꾸었다. FAFSA를 신청한 후에 가족이 얼마의 돈을 학비로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대신에 학생에게 재정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수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원자 가족의 재정에 따라 SAI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마다 어떤 학생

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도 지수에 따라 충분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은 FAFSA를 작성할 때 양부모 중 어느 부모가 학비를 책임질 것인가, 또는 이혼 등에 따른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2023-2024년 FAFSA부터는 바뀌게 된다.

■ 펠 그랜트(Pell Grant) 혜택 확대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펠 그랜트 자격의 확대다. 펠 그랜트는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 값을 필요가 없다. 2020-2021 학년도 펠 그랜트 최대 금액은 학생당 6,345달러이지만 2021-2022 학년도에는 6,495달러로 올랐다.

펠 그랜트 자격의 기준이 매우 단순해짐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펠 그랜트 자격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며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펠 그랜트는 학생의 가족 수와 조정후총수입(AGI)을 연방 빈곤선과 비교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FAFSA 신청 후 가족들의 ‘예상 학비 지불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됐었다. 의회는 이번 개정법으로 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

법은 2023-2024 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 재정 지원 자격 결정 확대
‘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가족과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잃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 재정 보조 혜택을 결정하게 된다. 의회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할 때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수입을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직 수당을 받는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이 ‘0’이 되므로 펠 그랜트를 받는 자격이 된다.

■ 졸업때까지 ‘디렉트론’ 받는다
‘연방 디렉트 보조 융자’ (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s)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보 보증 학비 융자금이다. 이 학비 융자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또는 대학원 재학과 같은 수학 기간 동안 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가 정한 교육 기간의 150%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라면 최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이라면 최대 6년 이내에 공부를 끝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이 같은 대학 재학 연수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다. 따라서 학생들이 완전히 대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연방 정부가 보증해 주는 디렉트 보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존



코로나-19 예방

일반인은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늦어 지고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 보건국이 1월 중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만 접종 분량의 백신이 공급됐지만 65만명 가량만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는 11일부터 두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작했다. 두번째 단계 접종은 클리닉, 치과, 약국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첫번째 단계인 병원 근무자와 양로 시설 입원 환자 등에서 접종자 폭이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백신 접종 순서를 간단히 정리했다.

■ **현재 백신은 누가 맞고 있나**
첫 접종자들은 '페이스 1A'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양로시설 입원자들과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다. '페이스 1A'는 다시 3그룹으로 세분화돼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는데 백신의 공급 속도에 따라 접종 속도 역시 달라진다.

▲1군(Tier 1): 응급실, 정신과 치료 병동 근무자, 양로병원 및 양로원, 응급출동 요원, 응급 기사, 투석 시설 근무자.

▲2군(Tier 2): 일반 병원, 방문 간호 근무자, 공공 위생 근무자, 일반 의사 진료소 근무자 및 어전트 케어 근무자.

▲3군(Tier 3): 전문의, 의료 검사 시설 근무자, 치과 및 구강 관련 시설 근무자,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들 첫번째 접종 그룹은 접종에 큰 문제가 없다. 각 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접종 통보를 하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직원들 역시 전문 라이선스, 종업원 신분증 또는 급여 증명만으로도 간단히 신분을 확인받고 접종을 받으면 된다. 또 양로 시설의 대부분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

65세 이상자 등 1B군 접종 예상보다 늦어 전문가들 우려 항체 지속 여부는 불분명 백신 효력은 접종후 1~2후

급되지만 일부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 독자적 공급에 나서기도 한다. 현재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이 각 시설과 직접 연결해 접종을 주도하고 있다.

■ **다음 접종 대상자는**
다음 접종 단계는 1B다.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오렌지카운티는 접종을 시작했고 LA 카운티도 제한된 숫자만 신청 접수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1B 단계는 다음의 두 군으로 분류된다.

▲1군: 75세 이상자, 학교 및 어린이 시설 근무자, 소방관, 경찰, 교도관, 마켓 근무자를 포함한 식품 및 농업 종사자.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65세 이상자 접종 신청 웹사이트 : <https://covid19.othena.com/patient-registration>

로스앤젤레스 : <http://publichealth.lacounty.gov/>

벤처라카운티 : <https://www.venturacountyrecovers.org/vaccine-information/portal/>

샌버나디노 카운티 : <https://sbccovid19.com/vaccine/locations/#load>

리버사이드 카운티 : <https://www.ruhealth.org/covid-19-vaccine>

▲2군: 65세 이상자, 교통 운송 시설 근로자, 비상 대피 시설 근무자, 노숙자, 재소자, 생필품 생산 근로자. 백신이 공급되면 카운티 보건국 및 기타 정부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 의사, 약국 등에서 접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접종 연령 그룹에서 포함된다면 주치의 또는 보험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예를 들어 카이저 병원은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예약을 주선해 준다. 또 각 지방 보건국은 커뮤니티 그룹과 은퇴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농업 및 식품 서비스 업체 근무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통보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이 접종 대상자들을 결정하지 않는다. 소규모 직장은 보건국 지정 접종 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대형 업체는 자체내에서 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노숙자는 쉼터 또는 지역 보건국에서 운영하는 집단 접종 시설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다음 차례는 누가 되나**
다음은 1C 단계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 지 결정된 바 없다. 다만 보건당국은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그룹에는 50대 이상자와 16~49세 연령대의 장애인 또는 암, 신장질환, 만성 폐 질환, 심장이 좋지 않거나 장기 이식자, 비만, 임신, 혈액 질환, 흡연 및 당뇨병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다. 또 상수도 관련 종사자, 군인, 에너지, 통신 및 정보 기술, 재정 서비스, 화학 및 위험물 처리, 공무원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종사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접종은 의사 또는 보험 회사를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이나 직장 또는 보건국 지

정 장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 **잔여 그룹**
2단계 그룹에 대한 청사진은 명확하지 않다. 올해 봄 안으로는 접종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또는 심각한 정신 질환자 시설 수용자 및 스텝, 심각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보급이 더 늘어나면 1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 어린이, 근로자들이 접종을 받게 된다.

■ **내가 자격이 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주 코비드-19 핫라인 1-833-422-4255(월~금요일 오전 8~오후8시, 토~일요일 오전8~오후5시)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그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다.

■ **재향군인이다.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정부와 같이 재향군인부 역시 자체 접종 단계를 운영한다. 현재 장기요양시설 거주 재향군인, 척추 부상자, 재향군인 진료시설 근무자 등 3그룹으로 나뉘어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 일단 이들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연방 정부 가이드에 따라 심각한 순서대로 접종이 이루어 질 것이다.

■ **백신을 맞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1-2주는 걸린다. 다시말해 접종을 받았어도 항체 생성 전까지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후 항체 지속 시간은 확실치 않다. 다만, 코비드-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최소 8개월 동안 항체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1A 첫 접종자 그룹

1군(Tier 1)
응급실·정신과 병동 근무자·양로 병원 및 양로원·응급출동 요원·응급 기사·투석 시설 근무자

2군(Tier 2)
일반 병원·방문 간호 근무자·공공 위생 근로자·일반 의사 진료소 근무자 및 어전트 케어 근무자

3군(Tier 3)
전문의·의료 검사 시설 근무자·약국 종사자·치과 및 구강 관련 시설 근무자 등

1B 2차 접종자 그룹

1군(Tier 1)
75세 이상자·학교 및 어린이 시설 근무자·소방관·경찰·교도관·마켓 근무자 등 식품 및 농업 종사자

2군(Tier 2)
65세 이상자·교통 운송 시설 근무자·비상 대피 시설 근무자·노숙자·재소자·생필품 생산 근로자

1C 3차 접종자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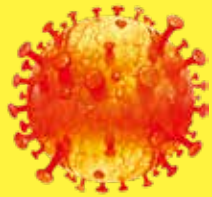
4월 말 또는 5월 초 접종 계획
50대 이상자와 16~49세 연령대 장애인·암, 신장질환, 만성 폐 질환, 심장이 좋지 않거나 장기 이식자·비만·임신·혈액 질환·흡연 및 당뇨병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잔여 그룹

올해 봄 안으로 접종 시작 예상

special issue

탈출 '코비드19' 타임라인



2022년 코비드 전망

2020년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속에 서 여처구니 없게도 잃어버린 해로 간직될 것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악몽 같은 기억이다. 하지만 사막에서도 꽃은 피는 법.

새롭게 미래의 희망의 꽃을 심어 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코비 19의 끔찍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보도한, 2021년 '탈출 코비드19'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2021년 역시 인류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주의 깊은 모임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백신의 보급에 따라 전세계에 비치는 희망의 등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낼 것이다.

2021년의 키워드는 백신이다. 미국인들의 70%는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보편화되면서 코비 19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질병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2022년 1월에야 가서야 끝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1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율은 아직도 높다. 사망자는 계속 늘고 병원마다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연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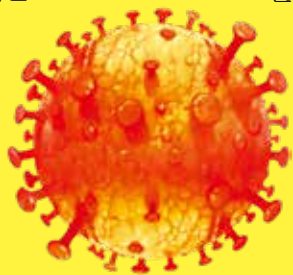
의료 종사자, 양로원 환자 등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접종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스크는 필수 소지품에 포함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최소화 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심각한 발병은 막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감염 확산이 누그러질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네브라카 오마하의 '어린이 병원' 감염 전문의 앨리스 사토 박사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계속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수퍼보울, 구정, 발렌타인 데이...)

함께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친밀한 만남은 삼가한다. 친구들과 끼리 모인 수퍼보울 관람은 금물이다. 백신을 맞은 의



료 종사자들이라면 모를까.

65세 이상자와 필수 직종 근로자들을 포함한 우선 순위 대상자들에게 백신이 보급된다. 2월

말까지 약 1억명의 미국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승인된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은 3~4주 간격으로 두차례 접종하게 돼 있다. 따라서 백신의 효과는 1월에 두번째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2021년 1월은 2020년 연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애리조나 의과대학의 리카도 코리아 내분비학 교수는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

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접종을 받아야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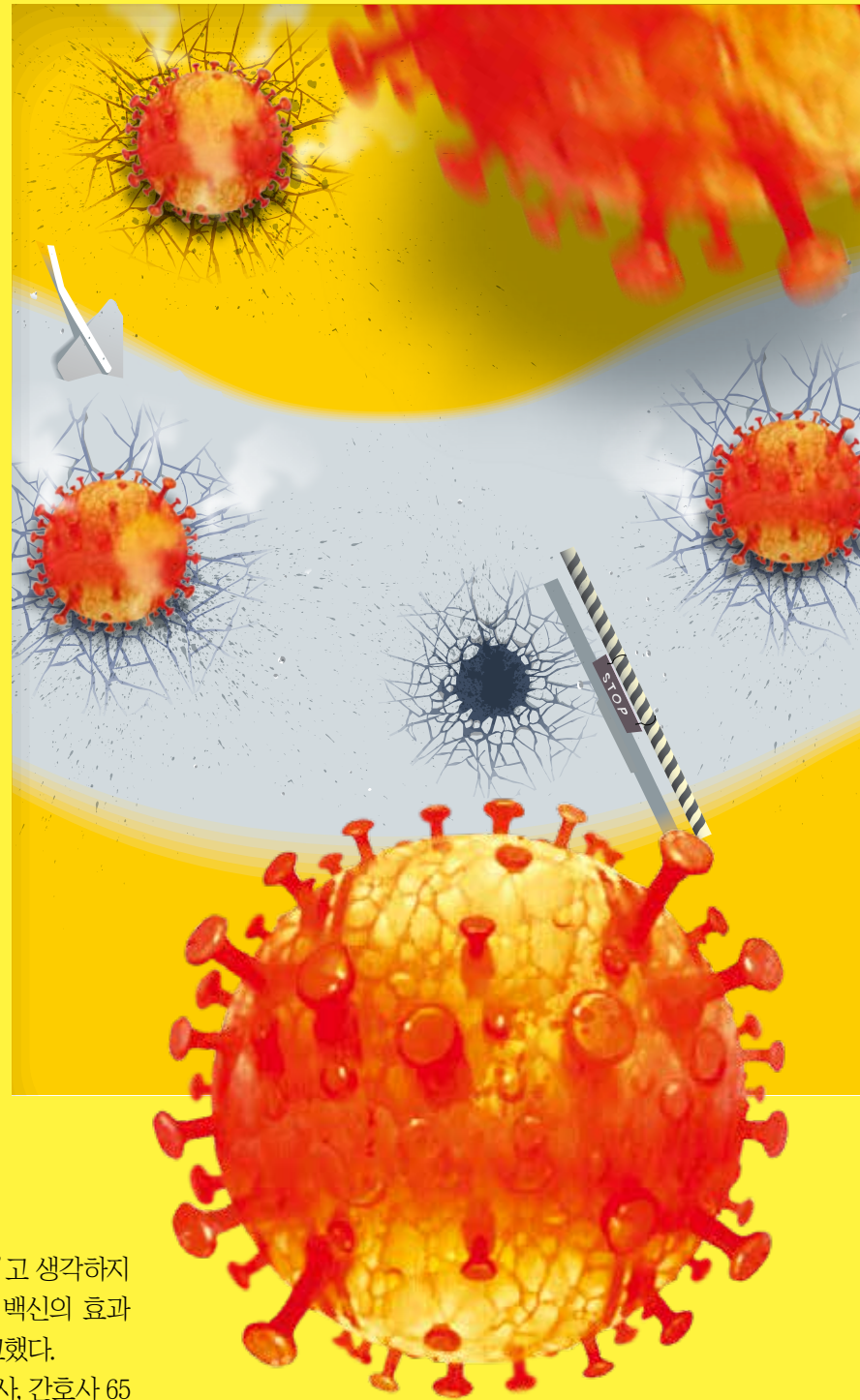
2월말까지 많은 의사, 간호사 65세 이상 노인과 우편배달부, 마켓 종업원, 소방관, 경찰, 교사, 버스 등이 접종을 받을 것이다

3월(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술집 이용은 전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미국인 1억명 가량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5세 미만의 기저 질환자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 된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 것인가는 각 주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종사자, 65세 이상자, 소방관 등 일선 근무자, 기저 질환자가 우선 순위로 꼽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비-19 자문관이자 미네소타 대학의 감염병 연구 정책 센터의 마치클 오스터험(67) 교수는 봄까지는 집에서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마 4월에나 가서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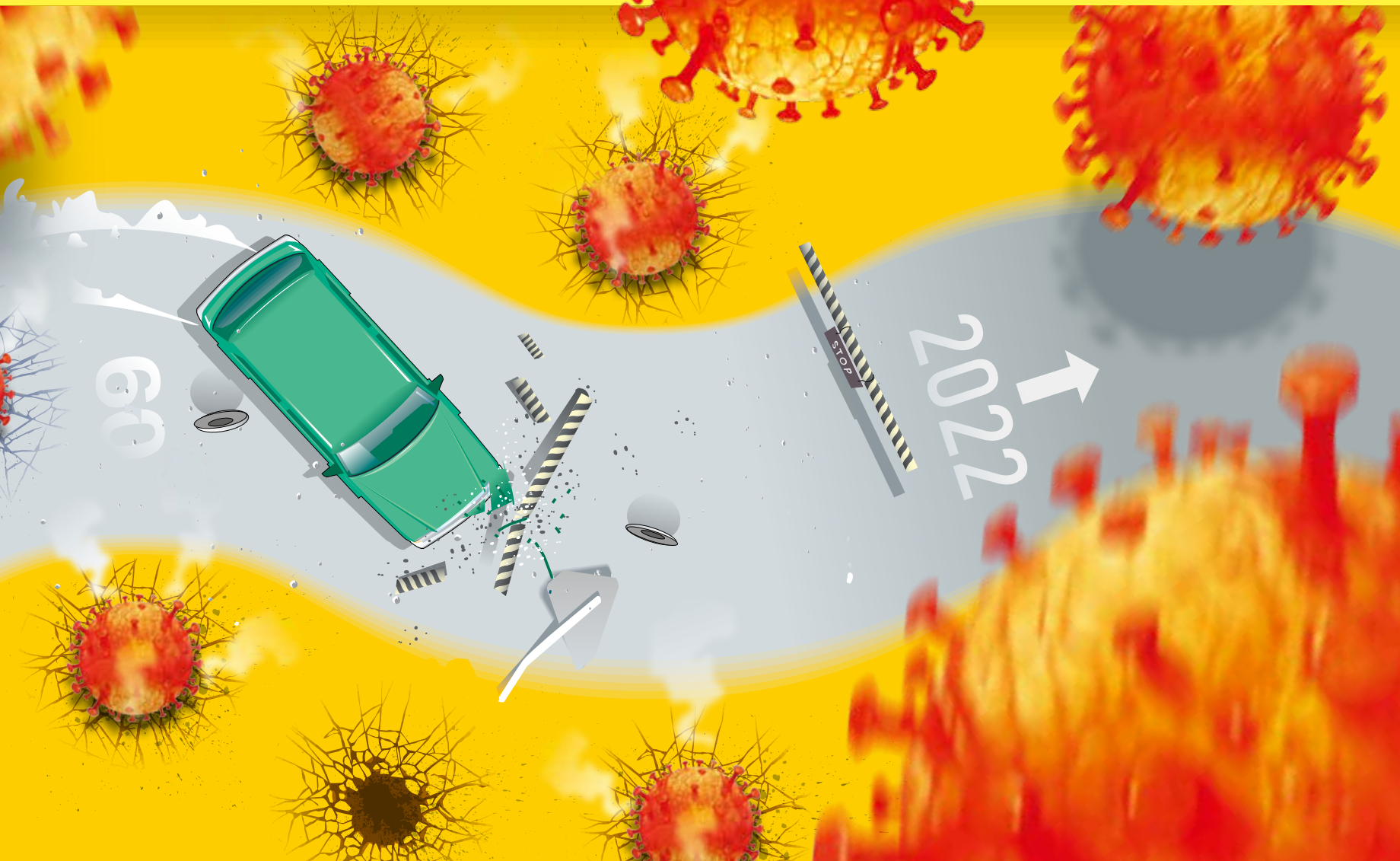



4월(부활절)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의 모임은 제한된다. 한가지 다행은 기저질환자들의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된다는 점이다. 이정도 된다면 미국내 사망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4월부터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다. 또 이때쯤이면 항체 치료제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리제너론'의 항 바이러스 칩테일과 같은 항체 치료제는 초기 증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브라운 대학의 메간 래니 응급 의학과 교수는 "봄이 되면 긴 터널 끝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이면 식당 내부에서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일러스트 

5월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닌 이상 아직 포용은 안전하지 않다. 마스크 역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식당에서는 소주 한잔 관촬을 듯 싶다. 젊은 층과 건강한 미국인들의 접종이 계속된다.

브라운 의대 아쉬시 자 학장은 “5월에는 실내 모임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름이 다가올 수록 바이러스 전염의 위세가 꺾일 것이고 집에서도 간단히 테스트 할 제품들이 개발 보급될 것이다.

5월31일(메모리얼 데이)~6월

대규모 모임은 아직 금지되겠지만 일부 술집과 극장은 다시 문을 열 수도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며 즉석 코비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겠다. 젊은이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계속되며 미국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맞을 것이다.

7월(독립기념일)

7월 독립기념일 바비큐가 가능할 전망이다.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는 결혼을 포함해 야외 모임은 허용될 수 있지만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된다. 또 스포츠 경기장 역시 제한된 수의 관객 입장이 가능해 진다. 이때 쯤이면 미국인구의 60%가 백신을 맞을 것이다.

브라운 대학의 자 학장은 “7월이면 나역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 감염율을 매우 낮아질 것이고 양로병원의 부모님 방문도 가능하며 현장 감염 테스트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극장에서 여름방학 특선 영화 관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월(노동절)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며 학교 들 역시 마스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기업 역시 재택 근무 대신 다시 오피스 출근이 허용되며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야외 공연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백신 전문가 펄 오핏 교수는 “내년 풋볼 경기를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예측이 빗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10월(할로윈)

할로윈 트릭-오-트릭이 다시 돌아올 전망이다. 할로윈 하우스 파티는 권하지 않겠지만 감염이 낮은 지역에서는 참석자에 대한 즉석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가능할 지도 모른다. 아마 인도어 공연도 제한된 인원속에서 재개 될 수 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가 될 수 있다.

11월(추수감사절)

마스크는 계속 사용해야 하겠지만 연휴 여행은 아마도 안전할 것 같다. 원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이다.

브라운 대학의 자 학장은 “이미 약속을 한다거나 포용을 하는 등의 인사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12월

노부모 방문 등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가족 중 일부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든 미국인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월

코비 19 감염 우려는 매우 낮아질 것이지만 아직 위험 지역은 남아 있을 것이므로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를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인 75%가 백신 접종을 했다면 집단 감염이 가능해 질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2021년 한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우스 파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 성적 좋은 10대, 자동차 보험료 낮춘다

운전 연습생 퍼밋 때부터 가입해야
가족 플랜에 추가하면 보험료 152% 높아져
무보험 적발되면 면허 박탈·차량 압류
만약 대비해 보상 한계 높이는게 바람직

10대들에게는 운전면허 취득이 꿈 같은 현실일 것 있다. 자동차로 시원한 해변가를 달리고 한적한 도로 위를 ‘쌩쌩’ 질주하는, 상상만 해도 짜릿한 전율이다. 이런 10대들과는 달리 부모들의 마음은 조마조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사고의 위험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인 데.

이런 1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부모와 함께 가입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입한다. 물론 10대들이 혼자 보험을 구입하면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10대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자동차 보험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0대 운전자들은 운전 연습생 허가증을 받을 때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국내 주별로 운전 연습생 허가증 기간과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5세6개월부터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연습생 허가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데 부모를 동반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스스로 독립적 보험을 가입하거나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부분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싸진다. 물론 부모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

▲학교 성적이 평균 이상이면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10대 자동차 보험은 꼭 필요하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 보험은 사고 발생 때 가해 운전자의 재정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다. 미국에서는 뉴햄프셔를 제외한 50개주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책임 보험

(liability)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상대방에게 재산적 신체적 손실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 자동차의 책임보험(liability)

기본적으로 두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대인 상해 배상 보험(Bodily injury liability·BD)과 ▲대물 배상 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PD)이다.

■ 대인 상해 배상 보험(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보험 가입자 또는 약관에 명시된 다른 운전자가 운전 중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인 배상 보험이 병원 치료비와 기타 비용을 지불해준다. 대인 상해 배상 보험은 다시 두가지로 구분해 보험금 한계를 둔다.

▲1인당 배상액과 ▲사고당 배상액 한계다. 사고가 나면 무한정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당 지불하는 배상금에 한계가 있고 또 사고당 지불해주는 배상금에도 한계를 둔다. 예를 들어, 개인당 지불해주는 치료비는 2만5,000달러, 한번 사고 때 지불해주는 최고 치료비 5만달러 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정해 둔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배상금 한계도 올라간다.

■ 대물 배상 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대물 보험은 가입자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자동차 또는 기타 재산을 파손했을 때 수리해주는 보험이다. 역시 한없이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계 까지만 커버해 준다. 한계는 각 주정부가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최소 25/50/25의 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이는 신체 상해 책임 보험, 즉 1인 대인 배상 보험 2만5000



15세6개월부터 운전면허를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 10대들은 운전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한 시험관이 10대 청소년의 운전 능숙도를 채점하고 있다. 123RF

달러, 사고당 대인 배상 한계 5만 달러, 재산에 대한 대물 책임 2만 5,000달러라는 뜻이다.

주에 따라서는 ‘포괄적’(comprehensive), ‘충돌’(collision), ‘무보험 운전자’(underinsured/uninsured motorist), ‘개인부상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커버리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충돌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또 포괄적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아닌, 화재나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동차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면 대출 회사는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충돌 및 포괄적 보험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한다. 만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사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청구한다.

■ 10대들을 위한 추가 조항

보험에는 필수 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인 약관도 있다. 하지만 10대 운전자에게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모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렌트비 조항 ▲로드사이드 지원 조항 ▲토잉 및 인건비 조항 ▲의료비 지불 조항 또는 ‘미디어’.

여기에 ‘갭’ 보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갭’ 보험이란 자동차가 대파돼 ‘완전 파괴’(토틸로스) 됐다면 보험 회사는 자동차의 현 시세로 계산해 보상해 준다. 그런데 대개는 자동차 대출금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보통 자동차 월 페이먼트는 원금 보다 이자를 먼저 갚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보상금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보다 적기다.

■ 10대 운전자 보험 가입해 주기

■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기

부모 보험에 자녀들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진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보험료를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공부를 잘하면 보험료도 낮아진다. 보험사마다 모범학생 할인 제도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한다. ▲운전 교육 또는 방어운전 과정을 받아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과 주택 보험을 한데 묶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자동 보험료 인출을 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전 운전 습관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셀폰 사용이나 텍스트 행위는 매우 위험한 습관임을 자녀들에게 주지 시킨다. 또 도로 안전의 기본에 대해서도 자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 10대 자녀들의 교통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는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10대들의 운전을 제한한다. 캘리포니아는 16세 운전자의 차에 친구들을 동승하지 못하게 한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전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줘야 한다. 대부분 법적 음주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지만 10대들은 ‘0’가 음주 한계치임을 알려준다.

주법에 따라 10대 운전 면허 견습생 퍼밋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보험을 요구하는 주가 많다. 이럴 경우 부모의 보험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 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면 된다. 물론 부모의 코사인이 필요하다. 인터넷 보험 전문 매체 ‘Insurance.c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를 가족 보험에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15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독자 가입 보험료보다는 훨씬 싸다.

10대 자녀들이 운전 중 사고를 대비해 책임 보험 한계를 더 높인다. 한계를 높인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만약 10대 자녀들이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까지 빼앗긴다. 또 자동차 역시 압류된다. 운전면허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권이다. 언제라도 그 특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다.

70세 넘어 연금 받지 않으면 6개월만 소급 지급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62세 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을 수록 더 올라간다.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년 8%씩 불어나 62세부터 받는 금액보다 77%는 더 받는다. 그럼 70을 넘어 더 기다리면 돈이 더 올라갈까. 아니다. 70세 이후 부터는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오르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리는 미국인은 6.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94.5%는 7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다. 그렇다면 70세가 돼서 받으려면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봤다.

■ 70세까지 기다렸는데 언제 신청해야 하나
소셜 시큐리티국은 70세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 지난후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가 다시 연금 수령을 중지시킨 다음 70세까지 기다렸다면 소셜 시큐리티 국은 70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적으로 연금을 지불해 준다. 이외에는

70세 되기 4개월 전부터 최대 연금 신청 가능

소셜시큐리티국, 70세 돼도 자동 지급 안 해줘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럼 70세에 받는 연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 70세가 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언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드시 수령 일자 70세가 되는 생일 달 부터 받았다고 해야 된다. 아니면 몇개월 일찍 신청한 것으로 돼 70세에 받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신청해도 소셜 연금은 선지불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70세 생일 맞은 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70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 부터 돈이 나온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0일인데 연금 신청 때 4월부터 받았다고 해도 실제 연금을 5월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생일이 1일이라면 예외다. 바로 전달에 태어난 것으로 계

산돼 연금을 생일 맞은 달부터 지급해 준다. 만일 5월 1일에 태어났다면 연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는 말이다.

■ 70세를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
70세가 지났는데도 연금을 받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 소급해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늦게 받는다고 더 이득을 보지는 못한다. 일단 70세가 되면 연금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70세를 넘어 6개월 이상 기다리면 아예 넘긴 기간 동안의 돈은 없어져 버린다. 6개월 이상은 소급해 지불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전에 신청해 받고 있는데 일을 한다면 연금을 다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인데 일찍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해서 번 돈이 1만8,960달러 이상이라면 초과되는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제해져 지급된다. 이 공제액은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 되는 해에는 5만520달러 이상 수입에 대해 3달러당 1달러씩 공제 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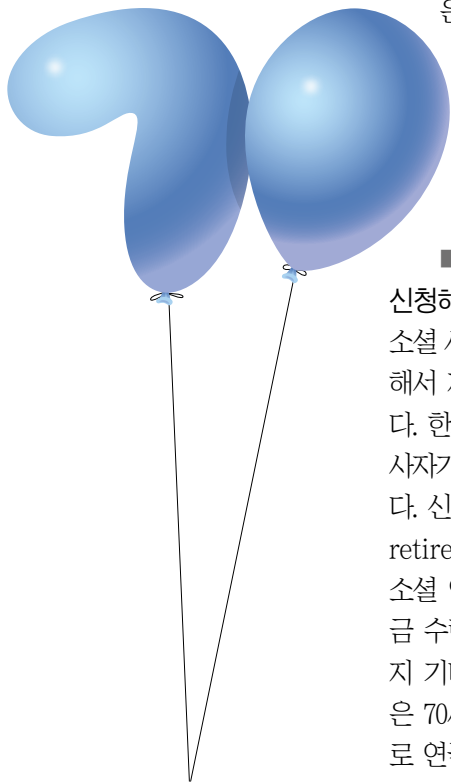
렇게 공제된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소셜 연금에 추가돼 돌려받는다.

일단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공제되는 금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다.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소셜 연금은 총 35년간의 납세 근로 기록을 근거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40년을 일을 해 세금을 냈다면 이중 가장 수입이 높은 35년치 수입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 결론
70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2세에 받는 연금 액수와 70세에 받는 연금은 77%나 차이난다. 그런데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만기 은퇴 연령(66)이 지나도 금액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 70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연금을 언제 신청할 것인가는 순전히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이 좋고 장수 집안이라면 당연히 늦게 받아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살수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수명도 짧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일찍 받아야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존



경기고등학교
KYUNGGI HIGH SCHOOL

이민 생활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길
us metro news에 기대합니다

경기고등학교 74회 동문 김희웅

시카고  **WOORI VILLAGE** 대표
KOREAN BBQ

은퇴저축



“은퇴저축 플랜인 IRA구좌를 유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roll over·롤 오버) 시켜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또는 부모, 친척, 지인으로부터 은퇴 저축 플랜인 IRA를 물려 받는다. 한꺼번에 몽땅 찾아 쓸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로 옮겨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IRA(개인 은퇴 연금 계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돈을 뽑아 불러 나가는 ‘전통 IRA’ (Traditional IRA)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낸 순수익으로 돈을 모아 불리는 ‘로스 IRA’ (Roth IRA)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에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불러 나가기 때문에 찾아 쓸 때는 반드시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세금 유예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후자는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수입으로 투자하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투자에 따른 수익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지 않는다.

질문으로 돌아 간다면 배우자로부터 물려 받았을 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은퇴 플랜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없고 10년 또는 5년 이내에 모두 돈을 찾아야 한다.

■ 배우자로부터 받았을 때 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 IRA를 물려 받았다면 배우자 이므로 공동 재산으로 취급 하면 된다. 다시말해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찾아 쓸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IRA’로

유산으로 받은 IRA, 어떻게 해야하나 배우자면 소유권 이전 문제 없어 자손이면 특별계좌 개설해야

전액 이체시켜도 된다. IRA 소유주는 사후를 대비해 IRA 또는 기타 금융 자산을 물려줄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해 둔다. 이 수혜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럴 경우 수혜자는 몇가지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름만 바꾼다

첫째, 물려 받은 계좌의 소유주 이름을 자신으로 바꿀 수 있으며 죽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때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IRA 계좌로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전통 IRA로, 또는 세금을 낸 후에 로스 IRA로 옮길 수 있다. 일반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은 회사 은퇴

플랜 이나 401(a), 403(b) 어뉴리티 플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457(B) 등으로의 이체가 가능하다. 직접 선택한 플랜으로 이체시킬 수 있고, 플랜에서 직접 돈을 찾아 다른 IRA로 입금시켜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따른다. 직접 돈을 찾아 입금할 때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60일이 지나서 입금시키면 그 돈은 일반 수입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찾아 입금시키는 방법 보다는 플랜에서 플랜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적극 권한다. 이를 ‘trustee to trustee’ 이체라고 부른다.

▲세금은 수혜자 나이로 적용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혜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계좌를 받은 배우자가 59 1/2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쓴다면 소득세와 함께 찾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72세 부터는 매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연간 ‘최소 인출금’ (RMD)에 적용돼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찾아야 할 금액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70.5세가 됐던 사람들은 RMD를 즉시 받아야 한다. RMD 인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려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현재 물려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IRA 계좌로 옮길 수 없다. 다만 새로운 IRA 계좌를 열고 돈을 이체시킬 수는 있다. 물론 세금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CPA등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 즉 부모나 친척 또는 지인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면 바로 이체(롤오버)시킬 수 없다. 이 경우, ‘물려받은 IRA’ (inherited IRA)라는 새 IRA 어카운트를 열게 된다. 이 IRA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당연히 받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수혜자는 이 IRA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 없으며 다른 은퇴 계좌로도 돈을 이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물려 받은 IRA’ 계좌에 돈을 한 없이 넣어 둘 수도 없다. 대부분 모든 돈은 원래 물려준 소유주가 죽은지 10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특히 물려 받은 계좌가 ‘로스 IRA’ 라면 원 소유주가 죽은지 5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특히 ‘물려받은 IRA’ 계좌를 오픈하지 않고 한꺼번에 찾을 경우, 59.5세 이하에 찾아도 10% 페널티는 내지 않는다. 대신 찾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 정리를 하면?

배우자로부터 IRA를 물려 받았다면 물려 받은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이체)시킬 수도 있다. 물려 받은 IRA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배우자의 나이로 인

출 규정이 적용 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려 받았다면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려받은IRA’ (inherited IRA)라를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며 전통 IRA는 10년, 로스 IRA는 5년 이내에 모두 찾아야 한다. 그러나 50.5세 이전 인출 때 물게 되는 10% 벌금은 면제 된다.

BANK



자녀들 백만장자 만들어 주기 프로젝트



자녀들에게 현금 대신 ‘로스 IRA’ 개설해 줘라
집안일 도와주고 받는 돈으로 미래 투자하는 은퇴 연금
부모 관리자 어카운티 오픈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 59.5세 이후 이익금 ‘노 텍스’



요즘은 설날이나 생일날 등 명절에 자녀들이나 손자손녀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건네 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는 미국인들이 많다. 어려서 투자해 준 돈은 장차 큰 돈으로 불어나 자녀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종자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알찬 방법이 개인 은퇴 연금 계좌인 ‘로스 IRA’ 개설이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내고 난 순 수입으로 적립하는 개인 은퇴 연금 플랜으로 여기에서 불어나는 이자 수입 역시 100% 면세 되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들의 ‘로스 IRA’ 계좌에 적립된 돈이 100만달러로 불어났다면 자녀들의 나이가 59.5세를 지나면 100만달러는 고스란히 세금 없이 자녀들의 몫이 되는 아주 좋은 은퇴 플랜이다.

원금은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된 것이므로 세금은 없지만 불어나는 이자는 은퇴 나이 이후에 찾아야만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이다.

그렇다고 어린 자녀들에게 어카운트를 개설해 주고 무작정 돈을 넣을 수는 없다. 개인 은퇴 연금 플랜인 IRA는 적립하는데 조건이 있다. IRA는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적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있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다거나 집안 잔디를 깎아 받은 돈, 또는 부모의 사업체에서 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도 적립이 가능하다.

■ 부모가 어카운트 개설해 주기 대부분의 브로커 회사들이 미성

년자의 이름으로 된 ‘로스 IRA’ 어카운트 개설을 불허한다. 따라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보호자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커스토티얼 어카운트’(custodial account)라고 부른다. 자녀가 법적으로 계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계좌를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를 위한 피델리티 로스 IRA’가 대표적인 예이다.

■ 가능한 많은 돈을 적립한다 2021년 50세 미만자의 ‘로스 IRA’ 계좌 최대 적립금은 년 6,000달러다. 만약 자녀가 베이비시팅으로 3,000달러를 벌었다면 부모는



3,000달러를 자녀 이름의 ‘로스 IRA’에 적립해 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미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달러씩 넣어 줘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 1년에 5달러도 좋고 5,000달러도 좋다. 하지만 연간 최대 적립금을 넘지 말아야 한다.

■ 고품질 주식에 투자한다 자녀 명의의 로스 IRA를 개설해 놓고 투자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없다. 특히 요즘 같이 주식 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구좌의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좋은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가격이 오르내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돈으로 불어나 자녀들의 은퇴 생활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 투자자는 수천여종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주식 시세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은 1000달러 투자가 50만달러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잘 알겠지만 애플은 하이테크 시장의 붐을 이끈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질 좋은 하이테크 주식일 것이다. 이 주식은 정기적으로 수익 분배도 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회사의 수익을 나눠 갖는 이중 효과도 볼 수 있다.

■ 일찍 시작 할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모든 은퇴 투자의 기본이다. 특히 ‘로스 IRA’는 개설자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적립 할 수 없다. 다시말해 고소득자는 ‘로스 IRA’ 적립 자격을 잃게 된다. 자녀들이 장성해 돈을 많이 벌면 더 이상 돈을 적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려서 가능하면 많은 돈을 넣어 두는 것이 좋다.

로스 IRA의 또다른 매력은 세금 걱정 없이 적립한 돈은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섭 기자

주택을 팔려면 요즘이 가장 좋다

팬더믹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 많지 않아
백신 접종 늘어나면 바이어 마켓 될 것

팬더믹으로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주택 시장은 아직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을 팔 적기라는 말이다. 집을 사려는 바이어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구입의 호기를 맞고 있다. 이자율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자는 바이어들의 구매 심리도 주택 거래 시장의 활황세를 떠받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주택 판매의 적기는 언제일까. USA 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주택을 내놓아 최고 가격을 받는 최적기를 저울질했다.

■ 시장에 내놓기 전 집 수리부터

보통 셀러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 외견 치장에 치중하고 이곳 저곳을 수리한다.

그런데 요즘같이 매물이 제한될 때는 바이어들을 끌기 위한 대대적 보수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다소 오래된 카펫을 구태어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멋진 마루를 깔아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바이어들이 도망갈 정도의 확실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붕의 싱글이 낡았다면 고쳐 주는 것이 상식이다. 또 집 앞 정원에 죽은 나무가 있다면 말끔히 제거해주거나 나중에 나무가 쓰러져 집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집안의 전기 배선이 건축 코드에 맞지 않는다면 외견상 문제가 없더라도 수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홈 인스펙터가 발견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가 무산

되지 않게 마켓에 내놓기 전 손을 보는 것이 좋다.

■ 매물이 쏟아지기 전에 일찍 마켓에 내놓기

요즘은 마켓에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다. 셀러에게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조만간 계절적 요인으로 매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가격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셀러들이 많아진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조만간 일반 대중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코비드-19 감염을 우려해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셀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이어에게 집을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집을 팔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매물이 주춤하는 요즘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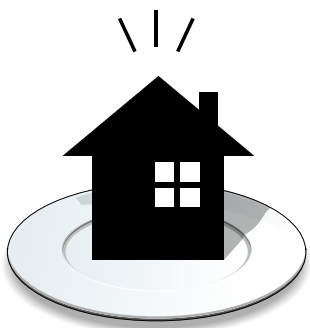
■ 바이어와의 거래 알기

거래가 거의 성사될 단계에서 바이어가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셀러로서는 악몽이다.

우선 사전 모기지 승인을 받은 바이어의 오퍼만 받아라. 사전 모기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기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출 회사가 이미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에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한다면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셀러 입장에서 주택이 시장에 쏟아 나오기 전에 서둘러 집 수리 하고 리스팅 해야 원하는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전 모기지 승인을 받은 바이어를 찾는 것이 좋다.



이자율 역대 최저, 주택 구입 적기

다운페이먼트 부족하면 FHA론 이용
이자율은 당분간 낮은 수준 유지할 듯
서두르지 말고 돈 모아 페이먼트 부담 줄여야

요즘 이자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 주택 구입의 적기다. 그런데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하다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경제 분석 매체 '모틀리 폴'이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3가지 조언했다.

요즘 모기지 이자율은 역대 최저다. 주택구입의 적기라는 말이다. 하지만 다운페이먼트가 없다면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다운페이먼트는 주택 가격의 20% 이상이 정석이다.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다고 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PMI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경우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PMI 보험료는 매년 대출금의 1%다. 예를 들어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3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3,000달러, 또는 월 250달러의 PMI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보험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돈을 낼 필요 없다.

하지만 바이어가 PMI를 구입하겠다고 해도 대출 회사는 20% 다운페이를 요구하며 대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FHA론(FHA론)

FHA론을 받으면 최소 3.5% 다운페이먼트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HA는 연방 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돈이 부족하고 크레딧이 낮은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을 보증해 준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려

며 대출금의 1.75%를 먼저 선수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PMI를 구입하지 않기 위해 FHA론을 받는다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 FHA론 역시 MPI라는 PMI와 비슷한 모기지 보호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FHA론을 받으려고 할까. 우선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해도 되고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 싼 주택 찾기

당연한 말이지만 재정 사정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다. 상상 속 내집의 크기를 줄이고 가격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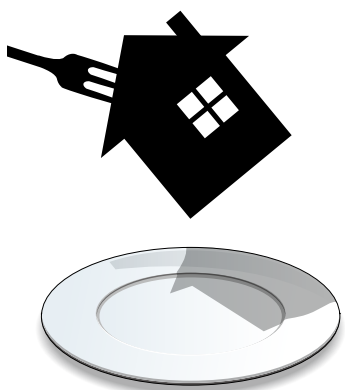
예를 들어, 35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운페이먼트를 3만5,000달러 밖에 모으지 못했다면 17만5,000달러의 집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물론 요즘 이정도 돈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지역은 한적한 중부지역 주 이외에는 없겠지만 말이다.

■ 저축을 늘리고 일을 더 하기

집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도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어렵다면 주택 구입을 잠시 미루고 다운페이먼트를 더 모은다. 특히 학군 좋은 지역이거나 안전한 동네의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원하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를 더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투 잡'을 갖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 1~2년이면 아마도 원하는 집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겠느냐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12개월 이상은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주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자율을 빠르게 올리는 것은 못한다. 현재의 2.7% 이자율이 2.9%로 올라간다고 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기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① 파이어 백신에 대한 설명과 접종 이후 72시간 안에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② 백신 접종 카드. ③ 백신 접종 이후 받은 안내지.

“일반 주사 맞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더스-사이나이 병원
직원들 대상 희망자에 실시
통증과 약간 피곤 느꼈지만
사흘 후 통증 완전히 없어져

지난 1월 14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나흘이 지난 현재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접종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코로나가 전보다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 10개월간 코로나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갑옷을 입은 느낌이다.

내가 속한 시더스-사이나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인 나는 최전선 의료진은 아니지

만 커뮤니티 행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기로 결정했다.

접종에 앞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다. 나이와 기저질환 여부, 업무형태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현재 접종 가능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모두 2회 접종해야 한다. 1차 접종일을 예약하자 3주 뒤로 2차 백신 접종일이 잡혔다.

백신 접종에 앞서 관련 연구 결과를 찾아봤다. 수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95%, 모더나 백신은 94.1%이다. 일반 독감 백신의 효과가 40~60%인 것과 비교하면 탁월한 수준이다. 화이자는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음,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매스꺼움, 림프관 부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으로는 독감 백신을 맞고도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예약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갔다. 본인 확인을 하고 정해진 곳으로 가서 왼쪽 어깨에 주사를 맞았다. 일반 주사 맞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카드를 받은 뒤 옆쪽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15분간 기다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보는 과정이다. 혹시나 알려지 반응이 생길까 하여 이곳 저곳 살폈다. 아무런 변화는 없었다. 비로소 “아, 이렇게 코로나와의 전투가 종식되는 구

나”라는 안심이 들었다.

그날 밤 주사 맞은 부위와 왼쪽 팔에서 통증을 느꼈고 약간 피곤했다. 내 몸이 면역을 만드느라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평소보다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까지 충분히 쉬었고, 사흘이 되니 팔의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다.

병원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까닭에 의료계 종사자(Healthcare Worker)로 분류되어 비교적 일찍 백신을 맞았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본 지침도 계속 지킬 것이다.

65세 이상 거주 주민 백신 접종 시작

의료계 종사자에 이어 6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 13일부터 65세 이상의 주민이면 희망자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테나’의 온라인 웹사이트(othena.com)나 스마트폰 앱(Othena)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 가능하다. 대표적인 접종 장소는 디즈니랜드 주차장이다.

LA 카운티는 지난 21일부터 백

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했다. LA보건국은 온라인 홈페이지(VaccinateLACounty.com)를 통해 백신 접종 주의 사항과 예약, 접종 장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저스 스타디움,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포모나 페어플렉스,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등에서 하루 평균 각각 4,000여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A보건국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1)

SARS-CoV-2: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2019년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의 이름.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COVID-19(코로나-19)의 원인이다.

Diagnostic Test: 진단검사

특정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코로나-19는 입이나 코에서 소량의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라고 부른다.

Antibody Test: 항체검사

특정 항체의 존재 여부를 통해 질환의 감염이나 면역상태를 보기 위한 검사. 코로나 항체검사는 진단검사와 다르며 혈액검사로 할 수 있다.

Positive vs Negative: 양성 vs 음성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한 경우 진단을 위한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Negative),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에서는 양성(Positive)이 나올 수 있다.



"Haiku" 36x60 inches, oil on canvas

“아트는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는 공기”

처음 Metro News의 원고청탁을 받고 망설였다. 나 자신 평생 그림을 그리고 그림 속에 살고있는 화가지만, 아직도 그림은 답이 없다. 어렵다.

그러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한 마디 “아트는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공기같은 것”이다. 예술이란 우리들 삶의 최전방에 있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의 감성을 연결시키고,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생활에 필요한 삶의 가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로서, 부족하나마 그동안 내가 느끼며 경험했던 일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적, 상황적인 것들에서 영감을 받고 자신만의 표현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하게되며 창작이란 과정을 겪게된다.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 관람자들과 만나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로서의 가치와 수고한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연, 이 세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력을 지닌 것들에게는 표현할 수

예술은 사람과 사람 감성을 연결하는 에너지, 생활에 필요한 삶의 가치



"Power of Mind" 21x14 inches, Lithograph

"January Wind - Day"
12x12 inches, acrylic on canvas"January Wind - Night"
12x12 inches, acrylic on canvas

있는 소재가 끝없이 많고 그래서 나는 더욱 신이 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다양한 영감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공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나 역시 “자연”이란 큰 테마가 내 작품활동에 영향을 주며, 그 속에서 소중한 내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새, 나무, 꽃, 산, 사람, 물, 바람... 늘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과 그 자연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무의식 속에서 찾게되는 내면 속의 내가 만나면 그림들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때로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승화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내리는 그림일기 같은 것. 그 표현이 색, 선, 형태...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 가장 자기스러울 때 가장 좋은 그림이라 말하고 싶다.

그런 매력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림그리는 일을 계속하고있다.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된 하와이주 최북단 카와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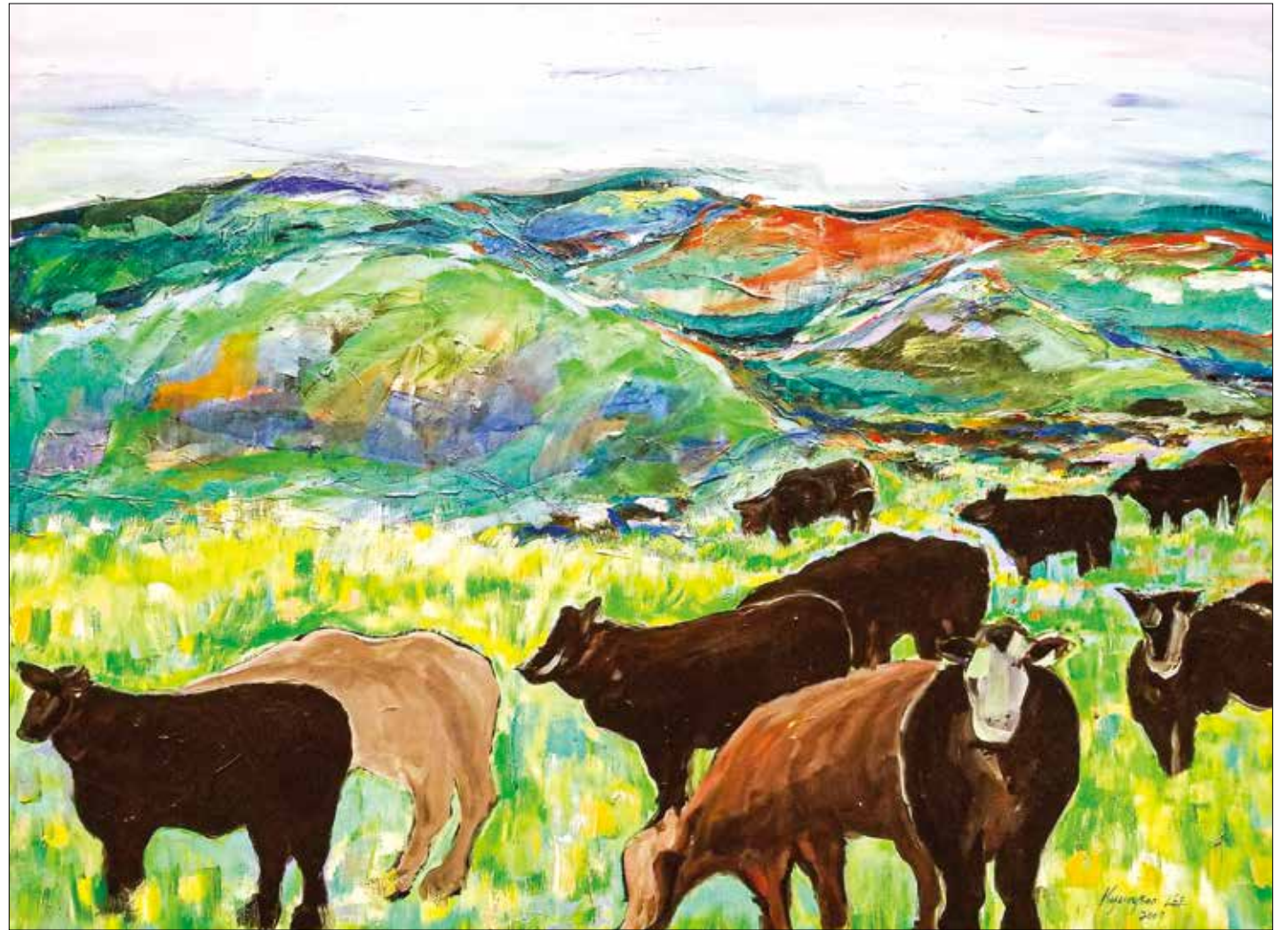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 소의 해다. 화고로 어떤 그림을 택할까 고심 끝에 몇해전 그려놓았던 소떼들의 그림으로 골라보았다.

올해도 소처럼 묵묵히, 앞으로 힘차게 뚜벅뚜벅... 하와이주 최북단 카와이(Kauai)섬에 10년간 살았던 적이 있다. 하루하루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어 지냈던 시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여과없이 그리던 때였다. 집에서 와이메아 캐년(Waimea Canyon) 가는길 들판에 방목되어진 소떼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하리만치 장관이었는데, 특히 검정소들의 무리는 나에게 강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부드러운 바람과 싱그러운 푸르른 대지위에 자유롭게 흐트러져있는 소떼들. 대충 캔버스에 색만 얹어도 그림이 될 것같은 장면의 기억과 내 감성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힘차고 강한 에너지의 대비적인 만남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많은 화가들의 작품에서 가끔씩 동물을 넣은 그림들을 접하는데 그것은 사실적인 표현 또는 상징적 대상, 신령적이며 우회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 또한 동물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지만, 나에게 동물은 동물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우회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카와이섬에서 훌쩍 긴세월을 보내고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우연치않게 살게된 카와이 10년은 화가에게는 보너스같은 시간이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또 다른 생활들은 소중한 작품의 영감과 자극이 되기도 했고, 그 시간속의 기억들이 하나씩 작품으로 녹아내리고 있다.



"Cattles" 30x40 inches, acrylic on canvas

“들판에 방목된 소떼풍경, 아름다워”



"Protea" 8x8 inches, acrylic on canvas



"Sweet Heart" 14x11 inches, acrylic on canvas



이경수 화가는

▶서울출생 ▶1983년 성신여자대학원 에서 석사(MFA), 성신여대 학사(BFA 1981) ▶1981년 대한민국 제30회 국전에서 입선, 구상전 공모전에서 특선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 후 칼스테이트 엘에이(CSULA)에서 미술공부 ▶1989년 대한민국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초청 “이달의 작가” (4월) 개인전. 작품 2점 영구소장 ▶1990년부터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시작. Sorbonne, Musee de la Commenderie의 전시참가 ▶1992년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우수작가상(Encouragement Public)의 수상과 작품1점이 남볼 보르도에 있는 코망데리에 미술관에 영구소장됨 ▶개인전은 서울, 미국, 스웨덴을 포함하여 22회, 다수의 단체전 ▶2000년 하와이의 카우아이섬에서 10년을 살다 2011년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현재는 캘리포니아의 뮤리타지역에 거주 ▶Art Teaching은 University of Hawaii on Kauai Community College에서 7년간 미술과에 재직하였으며, 1990년 초부터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와 엘에이 한국문화원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활동

“한국인 위한 새 헬스플랜 ‘K HealthShare’ 를 소개합니다”



이원준

보험인

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불만족스러운데다가 또 너무 비쌉니다. 특히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질병 예방도 잘 하는 편이라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한국인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미국인들보다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겠지요. 그런데도 미국인과 똑같이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건강한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헬스플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야 한인들이 건강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7월 1일 새롭게 탄생하는 헬스플랜 ‘K HealthShare’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가입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그리고 비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기존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해집니다.

▲한국인은 의료비를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운영된 ‘Healthcare Sharing’ (의료비 상호) 플랜 데이터를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의료비를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만 가입하는 플랜은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내 한인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의료비를 약 40~50% 적게 사용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K HealthShare는 신분에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인과 다른 예방검진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주기적인 위내시경으로 위암을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에게는 위암 발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강보험은

예방 차원의 위내시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헬스플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국 방식의 원스톱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방검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년 철저히 예방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질병이 조기 발견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방식으로 매년 12가지 검사를 받으려면, 1년 내내 검사를 받아도 다 못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K HealthShare는 모든 회원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매년 원스톱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 크레딧은 치과, 한의원, 검안, 한국방문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 HealthShare는 매년 회원들에게 의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의료 크레딧은 다양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 한의원, 카이로프랙틱, 검안, 청력 검사, 예방검진, 약값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K HealthShare는 매년 치료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회비를 회원들에게 다시 의료 크레딧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회원이 다른 신규회원을 소개해도 정해진 의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월회비
월회비는 회원들의 치료비와 의료 크레딧으로 사용됩니다. 치료비를 적게 사용하면 의료 크레딧이 많아집니다. 의료 크레딧은 잘 모아서 회원 개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크레딧은 가정 단위로 제공되므로, 가족 회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예약 가입하시는 선착순 5,000명에게 의료 크레딧을 2배로 드립니다. (1년동안 1명 \$2,000, 2명 \$4,000, 가족 \$6,000). 예약 가입은 가입하겠다는 약속일 뿐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플랜을 잘 검토하시고 가입하셔서 큰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수	월회비	의료 크레딧
1명	200	1,000/년
2명	400	1,000/년
3-5명	600	1,000/년
6명 이상	1명당 100씩 추가	

연락처 (213)700-9212 이원준

지난해 1년동안 미국은 1인당 평균 \$10,718를 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적은 1인당 평균 \$2,451를 지출합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인이 약 4.4배의 더 많은 의료비를 사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료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또 고질적인 의료비 낭비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지난 십수년 동안 미국에서 헬스플랜 관련 일을 해 왔고 지금도 헬스플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써 매

바이든 정부 출범, 시니어 위한 우호 정책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등 미국 시니어들을 위한 우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주목된다.

물론 이 정책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도 400달러로 올려 9월까지 연장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최소 소셜 연금 인상

바이든은 우선 ‘최소 소셜 시큐리티 연금’ (minimum Social Security benefit)을 연방 빈곤선 1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최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란 미국내에서 10년 이상 최고 30년 이상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매우 적게 냈던 빈곤층 노인들에게 연방 정부에서 최소 연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1년 현재 30년 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낸 은퇴자의 최소 연금은 897.90달러이며 가족의 경우 최고 1,348.40달러이다. 만약 바이든의 제안대로 연방 빈곤선 125%까지 올린다면 금액이 연 1만5,950달러(월1,329달러)가 된다. 미국내 65세 이상 인구 12.8%가 혜택을 받는다. 최소 연금은 10년 이상 일을 했

어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 대로라면 10년 이상 저소득으로 일을 한 사람은 최소 43달러의 연금을 보장받으며 근로 연수에 따라 금액은 30년까지 불어난다.

◆은퇴 플랜 401(k) 확대

바이든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들에게 401(k)와 개인 은퇴 계좌 IRA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중 2/3가 미국 상위 20%에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않았다.

◆메디케어 2가지 변화

바이든은 메디케어 연령을 60대로 하향한다는 과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럴 경우 2,300만명의 미국인들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처방전 약값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부양인 혜택 확대

바이든은 12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에게 미국 평균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셜시큐리티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나 가족 일원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또 미망인들 역시 추가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중 한사람이 죽어도 부부가 받던 소셜 연금 합계의 2/3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죽어 수입을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과세 수입 확대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40만 달러 수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럴 경우 140만명의 미국인들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신 14만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내 최소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양책도 구상중이다.

◆실업 지원수당 연장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이 주당 300달러지만 그나마 3월로 끝난다. 바이든은 이를 400달러로 올리고 기간도 9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가나안 갈보리 선교회

“사랑이 넘치는 선교회”

(마가복음 12장 30~31절)

한인사회의

유익하고 풍성한

은퇴 생활을 위해

us metro news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데이빗 정 목사

김갑수 · 김광현 · 김경복 · 김경환 · 송명록 · 테드 서 · 서흥식 · 오영환 · 이영건 · 이태일 · 장근태 · 조성열 · 차근조 · 제임스 한 · 한문식

가나안 갈보리 선교회 골프모임 일동



www.nongshimUSA.com

이제 간편하게 즐기세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짜파구리



WINNER
of 4 GOLDEN NEOGURI
AWARDS

OFFICIAL
RAM-DON
OF PARASITE

YouTube
MUKBANG
SENSATION

CRITICALLY
ACCLAIMED
RECIPE

THE RECIPE
THE INTERNET
CRAVES
2020

DIRECTED BY NONGSHIM AMERICA PRODUCED BY CHAPAGURI SCREEN PLAY BY RAM-DON
CHAPAGETTI NEOGURI DASHI THE KELP